

전농7구역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 조속한 착공 요구의 건에  
관한 청원(57)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전농7구역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 조속한 착공 요구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청원은 “서울시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전농제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약속한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의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서울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되면서 서울시의 학교부지 제공 요청,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문화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중한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완료되고 2013년 주민들이 입주한 지도 벌써 4여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된다는 소식은 물론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2008년 부지 매입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행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당초 약속대로 학교 및 문화부지를 조속히 착공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만약 조속한 착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협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청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